

# 여수 버스정류장 야동 상영...해커 못 막았다

### 24일밤 서교동 전광판 40분 무방비...경찰, 중국 IP 포착 원격제어시스템 무력화...해킹 쉬운 임대망 대책마련 시급

‘여수 버스정류장 음란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 측 IP가 여수시청 통제시스템에 수차례 접속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커가 보안시스템을 뚫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자가 외부망을 이용해 접근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음란 동영상이 상영된 버스정보안내기(BIT)가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임대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수시 서교동 서시청 앞 버스정류장 BIT에 음란 동영상이 나온 지난 24일 밤 11시30분께 중국 측 IP가 여수시청 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의 방화벽을 무력화시키고 수차례 접속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시각은 여수시청이 음란 동영상 상영을 인지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원격제어를 통해 BIT의 전원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시각과 겹친다. 전남경찰청은 본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여수시청 ITS의 로그(기록)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취객 신고를 받고 해당 버스정류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은 사건 당일 밤 11시25분께 BIT에서 음란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여수시청에 통보했다. 여수시청은 같은 날 밤 11시30분께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즉각 대

응에 나섰지만 원격 제어가 실패하고, 다음날인 25일 0시55분께 현장에 나가 전원을 차단하고 메모리를 제거했다.

경찰은 BIT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이 복사된 밤 10시50분께부터 음란 동영상이 BIT를 통해 시민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커가 침투한 경로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해커가 방화벽을 무력화시키고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외부망을 이용해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체 BIT가 아닌 1대에서만 동영상이 상영된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 BIT에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주변 CC-

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상이 유포된 BIT는 해킹에 취약한 임대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7억 7000만원을 들여 여수시 일원 버스정류장에 174대의 BIT를 설치했다. 이중 자가망 40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KT의 임대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TV나 인터넷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선인 임대망은 단독 회선을 사용하는 자가망에 비해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임대망으로 운영된 134개소의 BIT를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전남도 등에도 BIT의 보안강화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6, 해질 19:15, 달뜨기 23:35, 달지기 09:17

**강풍주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 비	13/16	보성	흐리고 비	21/15
목포	흐리고 비	13/16	순천	흐리고 비	13/16
여수	흐리고 비	12/14	영광	흐리고 비	12/16
나주	흐리고 비	13/16	진도	흐리고 비	13/16
완도	흐리고 비	13/16	전주	흐리고 비	13/16
구례	흐리고 비	13/16	군산	흐리고 비	13/16
강진	흐리고 비	13/16	남원	흐리고 비	13/17
해남	흐리고 비	13/16	홍산도	흐리고 비	10/13
장성	흐리고 비	12/16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1.0	북	0.5~1.5
남해	남부	북~북동	0.5~2.0	북~북동	1.0~2.0
남해	남부(동)	북~북동	1.5~3.0	북~북동	1.5~3.0
서부	남부(서)	북동~동	2.0~4.0	북~북동	2.0~4.0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농도

**시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8(목)	☁	12/20
29(금)	☁	10/23
30(토)	☀	10/25
5/1(일)	☁	11/24
2(월)	☁	13/24
3(화)	☁	14/22
4(수)	☁	11/23

## 광주 특수학교 졸업생 절반이 진로 못찾아

### 인권위 토론회...특수교사도 부족

지난해 광주지역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10명 중 5명이 진로를 찾지 못했다.

26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현철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은 지난해 광주지역 특수학교 졸업생 117명 중 59명(50.4%)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26일 고흥의 한 골재 채취장 뒤편으로 주상절리가 선명하게 보인다. 학계와 환경단체는 육지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주상절리로 보존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고흥 골재 채취장서 대규모 주상절리 발견

### 도화면 구암리 일대 5년전 첫 발견후 조치 없이 방치 내륙 주상절리 드문 사례...郡, 문화재청에 조사 요구

고흥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학술적 보존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주상절리가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흥군 등은 문화재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보존 방안을 강구 중이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관내 S업체가 관리 중인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일대 골재 채취장에서 최근 주상절리 지대를 확인했다.

이 주상절리는 현재 드러나 있는 규모만 높이 20~30m, 폭 100m로, 수직형과 방사형 구조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알려

졌다. 주상절리는 주로 해안가에 있고 육지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이곳 주상절리는 내륙에서 발견됐다.

경주 인근의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서 알려졌는데 고흥의 주상절리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고흥 주상절리는 5~6년 전 골재 채취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이후 별다른 보존 조치 없이 방치된 채 골재 채취가 계속됐다.

최근 환경단체의 보존요구와 일부 지질

학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존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환경단체측은 “보존이 필요한 곳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 “골재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군도 주상절리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골재채취 업체에 대해 발파작업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고흥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최대한 이른 시일에 현장에 와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업체에도 이 사실을 알렸으며 보존 가치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유치원 누리예산 긴급 수혈

### 예산 전용해 4월분 지급 市,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대응 교육청 보낼 전출금 유보키로

광주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다른 예산 일부를 돌려 쓰는 ‘전용’ 방식으로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는 대신, 기존 유치원에 지원할 다른 몫의 예산 중 일부(60억원)를 ‘전용’해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몫만 편성해 제출할 경우 발생할 시의회와 어린이집측 반발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7일 운영현 광주시장과 조

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정취국 광주시교육감 등의 간담회를 거쳐 집행키로 했다.

광주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개 월분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광주시가 우선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미편성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4월 이후부터 시교육청으로 보내야 할 행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측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자칫 자치단체·교육청간 갈등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을 자제하면서 도 전출금 감소로 인한 교육 예산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소방차 출동에만 10분...전남 '화재 취약' 127곳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전남에서만 127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거주 인구 100명 이상인 도서·벽지가 전국에 239곳이나 있다. 특히 전남에는 이러한 마을

이 127곳이나 된다. 지난해 안전처는 이러한 도서·벽지마을에 화재진압장비와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52곳, 2019년에 51곳에 단계적으로 화재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가 지원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ello GilDong! Yellow Jangseong!  
헬로우 길동! 옐로우 장성!

제 17회 전남장성  
홍길동 축제

The 17th 2016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6.5.6. (금) ~ 5.8. (일) / 3일간  
장소 장성공설운동장 / 홍길동테마파크

주최 Jangseong 주관 장성군 축제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지역진흥재단 KOREA LOCAL PROMOTION FOUNDATION

전라남도 대표 문화관광 축제